

韓國 地名의 意味論的 有緣性에 관한 研究

忠淸北道 山名의 基盤⁽¹⁾을 中心으로

李 庸 周

1. 머 리 말

이 논문은 忠淸北道의 山名⁽²⁾을 대상으로 그 言語外的인 有緣性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한 것이다. 무릇 語란 모두가 語源的으로 有緣的이라고 하거니와, 사람이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일 때는 그것이 지니는 어떤 형태인가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지명은 사람이 명명한 것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것들의 일부일 것이다. 특히 山이나 河川과 같은 自然地名과, 행정 구역 내지는 행정 단위의 이름이 아닌 洞里名 같은 것은 그 곳 주민들의 소박한 명명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명명되는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명명의 기반도 달라진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山名의 경우는 주로 ① 그 형상이 무엇과 유사하며, ② 그 山에 어떤 특징적인 물건들이 있으며, 그밖에 ③ 그 山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④ 그 山과 관련하여 어떤 故事·逸話·傳說이 있느냐 하는 것 등이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反해 河川의 이름은 주로 ① 그 河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發源地와 ② 어디를 지나서 흐르느냐 하는 經過 내지 所在地가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地名이라 하지마는 그것이 무엇의 이름이냐에 따라 그 양상은 상당히 달라진다.

지명의 순수 언어학적인 분석은 그나름으로 필요하겠거니와 本稿가 시도하는 바와 같은 言語外的인 有緣性의 분석 기술 또한 무의미하지 않다고 본다. 고금을 통해서 전래하는 命名法 내지는 發想法이나 기타의 思考方式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 山의 모양이 매(鷹)와 같다 하여 '매봉'이라고 하는 경우 '매'를 이「山名의 基盤」 또는 「命名의 基盤」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즉 山名을 짓는 근거가 되는 事物이나 性質 逸話 등의 特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 단순히 「기반」이라고 했을 때도 바로 이 「命名의 基盤」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2) 모두 952개의 山名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에서 자료를 얻었기 때문에 그 命名의 基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빠진 것이 있어 忠淸北道의 山名을 망라한 것은 아니다.

대상에 따른 命名法의 차이, 또는 지역에 따른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비교 연구는 상당히 의의 있고 흥미 있는 것이 되리라고 본다. 또 이들에 대한 시대적인 변천의 문제를 고찰하는 일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상세한 분석 기술은 광범하고 치밀한 분석이 행해진 다음이라야 비로소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그 일단으로서 우선 한 지역의 山名을 대상으로 命名法 내지는 發想法의 일부를 분석하여 기술해 보려는 것이다.

2. 命名의 基盤에 대한 概括的 分析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山 내지 峯의 이름으로는 ‘~山, ~峯’型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다. 그 밖에도 수십 종류의 形式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言語外的인 有緣性的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자료의 분석 결과 대강 다음과 같은 몇 개의 群集을 찾을 수 있었다.

- A. 山形이 닮은, 다른 사물이 命名의 기반이 된 것. 類似에 의한 命名이다. (353)⁽³⁾
- B. 山에 속해 있는 특징적인 물건이나 그 물건의 특징이 命名의 기반이 된 것 (219)
- C. 山 자체의 특징적인 狀態가 직접적으로 命名의 기반이 된 것. (246)
- D. 山과 관련된 故事・逸話・傳說 등이 命名의 기반이 된 것 (119)
- E. 其他(15)

넓은 의미에서 보면 ABC는 모두가 그 山의 특징에 속하는 범주들이다. 그런데 A와 C의 관계에서, A는 다른 사물과의 比較에 의해서 그 類似點으로 인한 基盤의 선택이고, C는 그것이 없이 다만 山과 그것을 에워싼 주의와의 관계 또는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山의 특징 등에 의해서 기반이 선택된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봉우리가 둥글게 생겼다고 해서 ‘둥글봉’이라고 하는 식의 명명법이 C의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C의 경우와는 달리 B에 있어서는, 山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山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등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B와 C도 구별을 하겠다.

A·B·C의 경우 山名만 가지고도 그 有緣性是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으나 D의 경우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별도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내력을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

E는 A~D 어느 범주에 소속시키기에도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묶어 놓은 것이다.

(3) 앞으로 山名의 數를 밝히는 數字는 참고 삼아 필요한 때만 간단히 괄호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山名을 총망라한 자료도 아니므로 數字 자체에 어떤 特別한 意味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 이질적인 것들이어서 하나의 유형이나 범주로 일괄 처리할 수 없으며 편의상의 처리에 지나지 않는다.

2. 1. A群의 諸範疇

A군에서, 命名의 기반이 되고 있는 범주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動物

A군 중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動物이다. 모두 358건 중 135를 차지하고 있다. 매(鷹)를 비롯해서 말, 독수리 등 20여 종에 달하는 동물들이 구체적인 山名의 기반이 되고 있다. 빈도가 잦은 순서대로 그 주요한 동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매(20), 말(18), 독수리(9), 소(7), 누에(7), 벌(7)

2. 用具一般⁽⁴⁾

여기서 주된 命名의 基盤이 되고 있는 것은

시루(25), 고무래(6) 붓(5)

등이며 기타 합쳐서 32 종류에 걸쳐 있다.

3. 服飾·裝身具

服飾이나 裝身具는 사람이 늘 몸에 부치고 다니는 것이다. 어떤 사물의 다른 사물과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경우, 그 비교되는 사물이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갈모(19), 삿갓(6) 감투(5)

등 13 종류에 걸쳐 있다. 특이한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의 머리에 冠用 내지는 着用되는 것들이다.

4. 사람

한 사물의 형상이나 성질등의 특징을 다른 사물의 그것에서 구할 때, 그 대상으로 사람은 좀더 많이 선택될 것으로 짐작했는데 뜻 밖에 적은 편이다.⁽⁵⁾

이 범주에 속하는 주된 기반은

玉女(18), 將軍(5) 老姑(5)

등이다.

5. 推積物

山과 推積物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들이다. 山도 무엇인

(4) 服飾·裝身具 項에 든 것의 대부분이 用具다. 그러나 이들은 특별히 한 項目으로 묶어 낼 수 있을 만큼의 數가 되어 분리 처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用具, 따로 따로 다루기에는 너무 數的으로 열세한 여러 가지 用具들을 한데 묶어 놓았다.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전체의 수도 많다. 잡다한 用具들이지만 그들이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신변에 늘 있는 물건들이라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다.

(5) 玉女, 將軍, 老姑 등 몇 종류 되지 않는다. 특히 사람의 구체적인 身體의 일부분이 命名의 기반으로 쓰이지 않은 것 등이 주목된다.

가가 쌓여서 되었다고 하는 非專門인 인식이 허용된다면 山과, 다른 물건이 推積된 것과 사이에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풀더미(1) 하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露積 가리’(15)다. 山봉우리와 노적가리의 모양은 비교되기 좋은 물건들이다. 山名도 ‘노적산’(3)보다 ‘노적봉’(11)이 훨씬 우세하게 나타난다.

6. 民俗・信仰

龍은 상상의 동물일 뿐더러 한국에서는 신비롭고 영감한 것 초인적인 능력의 소지자로 인식되고 있어 土俗的인 信仰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神仙 또한 사람이나 神이나 하는 한계가 모호한 대상이다.

이렇게 龍과 神仙은 正體 不明인, 아니 정체가 있을 수 없는 대상들이다. 그러나 고래로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의 머리 속에 익히 박혀 있는 특정한 形狀들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地名에서 그 기반이 되기까지 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7. 建造物

山名의 기반이 된 建造物은 종류도 수도 많지 않다. 城(3), 닭의뿔(2) 그리고 ‘기둥’ ‘별통’이 각각 하나씩 있을 뿐이다.

8. 文字

山名의 기반으로 文字가 택해졌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수적으로 많지는 않다. 一字(4), 丁字(2), 品字(1)의 셋이다.

9. 植物

動物에 비하면 植物은 아주 微微하게 나타날 뿐이다. 動物이 훨씬 더 印象的인 이유를 애써 찾을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植物에 비해, 보다 인상적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마늘(2) 芙蓉(2) 竹荀(2) 梅花(1)

10. 기타

本項은 자료만 들어 두기로 한다.

달(6) 섬(—: 3) 마당(2) 산(山: 1)

2.2. B群의 諸範疇

1. 岩石

특징 있는 岩石이 그 山의 命名의 기반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이다. B群에서 가장 수적으로 우세한 것이며, ‘~바위’와 같이 바위의 여러 가지 상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많아서 아주 다양한 山名이 보인다.

2. 建造物

특징 있는 岩石 다음으로 많은 것이 建造物이다. A群에서 建造物이 命名의 기반으로 쓰인 예가 많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山에 建造物이 있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가 山名의 기반이 되었다고 보겠다.

寺刹・佛堂(12), 城趾(7), 祭堂(6)

등이 그 주된 것들이다.

3. 植物

소나무(5), 진달래(3)의 순위로 되어 있다. 소나무나 진달래는 우리 詩歌에서도 가끔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山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요 꽃이다. 소나무 진달래를 합쳐서 도합 17 종의 식물이 기반으로 등장하고 있다.

4. 墳墓

사람의 屍身이 묻혀 있는 무덤과 胎를 묻은 무덤 두 종류를 하나로 분류하였다. 눈에 띄는 특징은 胎의 무덤이 명명의 기반이 되었을 때, 그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山名이 대다수이며, 그 胎는 신기하리만큼 王의 그것으로 되어 있다.

5. 動物

A군에서는 動物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B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에 이르고 있다. 또 앞으로 언급하게 될 C·D군에서도 動物은 빠짐 없이 명명의 기반으로 등장하고 있다. 山名의 動物에의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새(5), 매(2), 여우(2) 등 11종류에 이르고 있다.

6. 產物

그 山에서 생산되거나 출토된 물건이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예는 많지 않다. 山名에 이용될 만한 중요한 산물이 없어서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쇠(4)가 그나마 가장 수가 많다. 그리고, 金(2), 七寶(2), 숫돌(1) 등이 있다. 숫돌의 경우, 그것이 특별한 물건이 아닐지는 모르나 일상 생활에서 요긴하게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좋은 숫돌이 나온다면 그것이 명명의 기반으로 이용되는 일은 수궁이 간다.

7. 民俗・信仰

여기 속하는 것은 風水地理說에서 말하는 명당이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 온 것이어서, 그런 좋은 자리가 있으면 명명의 기반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8. 烽燧

봉수는 옛날의 情報交換의 중요한 수단인 하나다. 烽燧와 관련된 山의 이름이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명명되는 일은 다른 지역에서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아주 흔한 것은 아니어서 숫적으로 다른 것을 압도할 만큼 보이지는 않는다.

9. 물

산골짜기에 있는 물이라면 대단히 신기할 것은 없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 물이 있다는 것은 평범한 山에서일수록 특징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물 그 자체에 어떤 특징이 보일 때 더욱 그러하다.

10. 기타

窟穴(2), 峙嶺(2), 岫대(2), 古趾(2), 村落(1), 쇠곳(1), 안개(1) 도둑(1) 등이 명명의 기반으로 쓰이고 있다.

아주 색다른 것은 山名 하나에 명명의 기반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진천군 덕산면의 ‘척덕--서낭’이란 山名은 菑(葛)과 城隍堂의 둘이 복합적으로 명명의 기반이 된 것이다. 이번의 조사에서 오직 하나 발견된 형식이다.

2.3. C群의 諸範疇

1. 山勢

山이 圓形이라던가 높다던가 하는, 山의 형상과 地勢 또는 그 秀麗함이 다른 것과의 비교 없이 그대로 山名에 나타난 것을 여기 모았다.

圓形(34)이 제일 많다. 이것은 險峻한 山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기타 美麗(7) 傾斜의 緩急(6), 高尖(5), 長形(2), 납작함(2) 등이 기반으로 쓰이고 있다.

2. 所在地

山 이외의 다른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하는 處所 내지 그 주위의 특징이 명명의 기반으로 이용되는 일은 흔히 있다. 그 山이 존재하는 전후 좌우 모든 주위 환경의 특징이 山名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조사의 경우, 山 근처의 마을이 명명의 기반으로 쓰인 예가 가장 많다.

3. 方位

山이 東西南北 또는 上下와 前後 左右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때는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방위가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山名에 명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가장 많은 것은 南(13)이다. 다음은, 뒤(10), 앞(3), 밑·아래(2), 위(2) 안(1)등이다.

특이한 것은 風水地理說과 관련된 것으로 이른바 左靑龍 右白虎의 靑龍(左側)(5)이다.

4. 對比

다른 山이나 봉우리와의 大小의 대비가 명명의 기반이 된 山名이 가장 많다. 38 山名 중 8쌍이 ‘작은 ~山 : 큰~山’이라는 대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母 : 애기’의 대비가 있다. 二者 對比가 아닌 것으로는, 주위에서 가장 높다던가, 가장 크다던가 하는 것이 있다.

좀 색다른 것은 ‘외따로’ 존재하는 것이 명명의 기반이 된 것이다.

‘小俗離’는 陰城에 있는 산이다. 이 山은 報恩 俗離山의 줄기가 떨어져 된 것이라 하여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報恩의 ‘俗離’가 ‘大’라는 전제다.

5. 數

‘數’가 명명의 기반이 된 예는 상당하다. 三과 二·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三(15), 二(6), 七(4), 五(3), 九(3), 八(2), 十二(1) 등이다. 二와 十二의 예외가 있으나 대체로 奇數가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 山이나 峯이 奇數이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겠으나 奇數인 경우에 더 많이 ‘數’에 의거해서 명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奇數를 더 좋아 하고 특히 三과 七이라는 數를 좋아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6. 土色·土質

白(3), 赤(2), 黃(2), 黑(1) 등의 색채가 기반이 된 山名이 대부분이다. 樹木의 疏密이나 土色은 山峯의 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명명의 기반으로 이용된 것이라 본다.

이런 범주의 山名은 그것이 어느 계절에 붙여진 이름이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할 것이다.

색채 이외의 것으로는 모래가 많다는 것(6)이 기반이 되고 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것도 색채와 관련이 있다.

7. 氣象·氣候

여름에도 눈이나 얼음이 녹지 않고 남아 있거나, 늘 구름이 끼어 있거나 하는 상황이 명명의 기반으로 쓰이고 있다. 얼음, 눈, 구름 등이 山名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山이 높다는 屬性이 필수적이다. 山名에 명시되지 않는 않지만 山이 높지 않으면 그런 상태의 氣象 條件이 될 수가 없다.

8. 기타

여기서 특이한 예를 두 개 든다. 鎭川郡 栢谷面의 西山은 ‘x의 西’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 저녁 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西山이라고 한 것이다.

또 하나는 四方이 다 보인다 해서 四方山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2.4. D群의 諸範疇

1. 民俗·信仰

D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信仰·習尙이다. 달맞이하는 습관이 山으로 하여금 그런 이름을 가지게 한 예가 많다. 望月(14)이 명명의 기반이 된 것이 가장 많다. 그 외에는 神仙(9), 巫俗(6), 龍의 昇天(4), 風水地理(4), 祭天(1) 등이다.

2. 動物

D群에서도 動物은 명명의 기반으로 상당한 수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도 매사냥과 관련된 것(17)이 가장 우세하다. 말(馬: 4) 닭(1)과 같은 家畜이나 家禽에 비해 매사냥이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특이하다. 가축이나 가금도 중요하지만 山과 더 관계가 깊은 것은 매이기 때문에 山名에 매가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3. 戰爭·避亂

전쟁이나 피란이란 바람직한 것은 못된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피란해야 하고 그 산에 피란해서 무사할 수 있었으면 그곳은 명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었는가 한다. 그래서 그 사실이 산名の 기반이 된다.

이 범주에 드는 것은 전쟁시에 陣을 쳤다는 일을 명명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과 피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뉜다.

피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는 王과 관련된 것이 셋이나 있다.

4. 氣象・氣候

여기 묶은 것은 천지 개벽과 홍수에 의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겨우 ‘~만큼’ 남았다는 얘기들이다. 그 ‘~’에 해당되는 부분이 산名에 나타나서 ‘~山’이란 이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 부분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용구들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까마귀 머리’ 같은 것이 있으나 그 수는 미미하다.

5. 望京・慕君

王이,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 행차했다는 얘기가 기반이 되어 있는 산名에 國師峯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산名은 忠臣이 서울을 바라보며 임금을 사모했다는 고사나 전설과도 관련되어 있다. 기타 ‘國望’으로 된 산名은 얘기 내용이 그대로 명시된 것이라 하겠다.

6. 기타

사람이 멋지게 놀았다는 이른바 風流가 명명의 기반이 된 것도 상당히 있다. 뿐만 아니라 修道했다는 얘기와 학문을 닦고 재주를 배웠다는 얘기들이 명명의 기반이 된 것도 있다. 그 산에 살던 사람이 기반이 된 것도 있으며, 城을 쌓았다는 傳説이 기반이 된 것도 있다.

2.5. E群의 諸範疇

A~D群에 넣기 거북한 것을 따로 떼었다. 여기 속해 있는 중요한 것은 山의 所有者가 명명의 기반이 된 것이다. 姓氏가 기반이 된 것이 가장 많다.

이 밖에 그 산에 임자가 없던가, 나무를 금한다던가, 模範林이라던가 하는 것이 기반이 된 것도 있다. 장마때 물 구경꾼들이 그 곳에 오른다는 일이 기반이 되기도 한다.

3. 命名의 基盤과 山名⁽⁶⁾(1) : A群

앞에서는 어떤 것들이 산名の 기반으로 등장하고 있는가의 대강을 고찰했다. 여기서는 그것을 더 상세하게 분석해서 구체적인 명명의 기반이 어떻게 산名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6) 구체적인 산名에 대해서 그 소재지를 —히 밝히지는 않겠다. 다만 특이한 산名の 경우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를 밝히기로 한다. 「丹陽: 丹陽」은 丹陽郡의 丹陽邑이고 「淸原: 米院」은 淸原郡의 米院面을 뜻한다. 또 산名 전후에 ‘ ’와 같은 부호를 붙이지 않아도 문맥이 모호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두고 문맥이 불분명해질 염려가 있을 때만 ‘ ’ 부호를 붙이기로 하였다.

3.1. 動物

動物을 기반으로 한 山名은 대단히 많다. 특히 A群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각종 동물이 사람들의 인식에 깊이 박혀 있는 듯하다. 그리고 山을 볼 때 山形 여하에 따라서 곧 어떤 動物을 연상하게 되면 그것이 명명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1. 매

이미 말한 바 있거니와 A군에서 가장 많은 것이 매(20)다. 그리고 매를 명명의 기반으로 한 것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山名의 유형은 ‘매봉재’이고 다음이 ‘매봉’이다.

한국어에서 보통명사의 경우에는 KC 型이나 CK 型⁽⁷⁾ 기타 K와 C가 복잡하게 결합된 어구의 유형은 많지 않은데 地名의 경우는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매봉’이 바로 이 KC 형이 아닌가 한다. 한자의 峯과 봉우리의 ‘봉’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매峯’으로 본다면 이는 분명히 한국 고유어의 요소와 한자어 (요소)의 결합이다.

이 KC 형의 ‘매봉’은 흔히 ‘鷹峯’이라고 불리워진다. CC 형이므로 어구성법의 차원에서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나 ‘매봉’에 비해 훨씬 열세다.

2. 말(馬)

가축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말(馬)이다. 단순한 ‘말’ ‘馬’로 나타나는 山名으로는 말봉[馬峯], 말미, 馬山, 龍馬 등이다.

말의 특정 부분이 기반이 된 山名은 馬尾山, 말목산[馬項山], 말등재[말잔등], 말미동[말등]등이다.

말의 특정한 형편이 기반이 된 것으로는 五馬山 (5匹馬가 들어선 형국), 走馬山 등이 있다. 走馬脫鞍形인 山의 이름은 白馬山이다.

말미당(淸原:加德), 말미동(丹陽:佳谷)과 같은 것은 그 형식이 특이하다.

3. 독수리

독수리를 명명의 기반으로 한 것으로는 ‘독수리봉’ ‘수리봉’이 일반적인 山名이다. 전자보다 후자가 많다. 音韻上의 변동이 약간 있는 ‘수레봉’(1)이 있고 ‘시리봉산’(1)도 있다.

鷹洞山 또한 山形이 독수리와 같은 데 기인하는 것이다.

4. 소

‘소’는 모두 그 한 부분, 또는 특정한 자세가 기반이 되어 있다. 소머기산(牛項形), 牛頭峯 牛頭山, 소니뿔(소의 뿔), 소의 뿔등이 전자의 예이고 臥牛山은 후자의 예다. 數的으로 後者가 많다.

5. 누에

(7) ‘ck’는 漢字語(要素)와 韓國固有語(要素)와의 결합으로 구성된 山名이고 ‘kc’는 그 위치가 바뀐 것이다. ‘cc’는 完全한 漢字語, ‘kk’는 完全한 韓國固有語인 山名이 된다.

누에의 경우도 소의 경우와 비슷하다. 모두 누에의 특정 부분인, 머리가 기반이 되고 있다. 蠶頭끝, 누에머리[蠶頭], 누에머리끝산 [蠶頭山], 뉘머리 등이 모두 蠶頭가 명명의 기반인 것이다. ‘누에봉’이라고 된 것마저도, 잠두形이다. 전체와 유사하기보다는 부분과 유사 하기가 쉬운 탓이 아닌가 한다.

6. 범

형상의 유사를 말할 때 ‘~와 같다’ ‘~형’이라고 하는데 그 ‘~’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위치에 있을 때냐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범(虎)의 경우도 ‘범날’ ‘범의산’, ‘범벽재’ 등이 범의 형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름만 가지고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의 범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다. 이런 경우 그 山形에서 이를테면 ‘앉아 있는~’ ‘저 있는~’ 등등의 특징의 일부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범이 엷드린 모양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호광봉(報恩: 山外), 伏虎嶺(報恩: 馬老)등이 있는데 전자는 ‘엷드린’이란 특징이 무시되고 있는 예이고 후자는 그것이 명시된 이름이다. ‘버무기’는 범의목(頂)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7. 학(鶴)

‘춤추거나 나는 학’이 기반이 된 것이 明示된 山名으로, 鶴舞山, 鶴降山이 있으며 그런 限定이 전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는 鶴峯, 기타 鶴의 종류와 관련된 것으로 玄鶴峯, 黃鶴峯이 있다. 그러나 이 후자에 속하는 예들도 모두 ‘학이 나는 형국’ ‘학이 날다 구름 위로 들어가는 형국’ ‘黃鶴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등등으로 대개의 경우 날고 있는 학이 기반이며 알을 품는다는 특수한 상태의 학이다. 鶴은 날고 있는 것을 연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듯하다.

특이한 것은 彩雲山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학 타고 구름 사이를 나는 모양을 기반으로 하였다. 학을 타고 구름 사이를 난다는 것은 물론 상상이나 환상으로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鶴이란 현실보다는 훨씬 美化되고 神秘化된 仙境의 一員으로 인식된 대상이다. ‘彩’자가 그런 분위기를 돋보이게 한다.

8. 鳳凰

舞鳳山, 飛鳳山, 鳳舞山 등 명시적인 山名이 많고 ‘鳳凰臺’에서와 같이 한정이 없는 편은 적다. 봉황 역시 나는 것이고 춤추는 것이다.

9. 개

개등산[犬등山], 犬門山[大門山], ‘개머리산’ 등, 개 또는 개의 특정 부분이 명명의 기반으로 되어 있다.

10. 구렁이·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龍’은 龍과 구렁이에 두루 나타나고 있다. 구렁이는 오래 묵으면 龍이 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또 실지 山名을 보면 九龍山, 九

龍峯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발음 상으로 구렁이와 유사한 까닭에 ‘九龍’이라는 漢字를 충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 ‘蛇頭穴’은 ‘뱀의머리’가 명시적이다.

11. 황새

‘황새봉’이란 山名은 A군에 속하는 것으로는 ‘황새 형국’이 기반이 된 것이나 B군에 속하는 山名이 되기도 한다. 이때는 황새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명명의 기반이다. 수로는 2:4의 비율로 후자가 우세하다.

‘황새목’ ‘황새주둥이’와 같은 것은 은유적인 이름이다.

12. 기타

빈도 3 이하의 山名이다. 명명의 기반과 山名을 들어 둔다.

거북이 : 龜伏山, 거북산, 座龜山 / 까치 : 까치봉(2), 鵲頭山 / 노루 : 노루봉(3) / 닭 : 鷄舞山 달기발재, 달기봉 / 개구리 : 개구리산, 개구락산 / 雁鴨 : 오리봉, 기러기나간봉 / 나비 : 무자봉 [舞蝶峯], 蛾眉山 / 비둘기 : 鳩峯山, 비둘봉 / 우렁이 : 우렁봉[나봉](2) / 토끼 : 토끼봉(2) / 거머리 : 螞蟻峯 / 고양이 大猫山 / 꿩꼬리 : 꿩꼬리산(鶯巢柳枝形) / 따오기 : 목령산 [鶯嶺山] / 사자 : 獅子山 / 새 : 鳥頂山 / 제비 : 제비재

3.2. 用具一般

動物 다음으로 用具가 많다. 그 중에서 服飾 裝身具를 따로 떼어 내도 기타 用具一般이 80여의 빈도를 보인다. 잡다한 것을 묶었기 때문에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빈도4 이상의 것으로 시루(25), 고무래(6), 붓(5), 칼(4) 등이 있다.

1. 시루

시루봉(15)이 가장 많다. 다음이 시루산(5)이다. 증봉(2), 증산(1)과 같은 漢字語名이 각각 대응되고 있으나 수로는 별 것이 없다.

山과 峯의 의미의 차이로 보아 ‘시루산’보다 ‘시루봉’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루미’(1)와 ‘시리미’(1)는 모두 ‘시루피’의 변이형태다.

2. 고무래

고물개봉, 고물개산, 고물개산, 구무래산 등은 山과 峯의 차이와 音韻的인 변동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모두 동일 기반의 山名들이다.

‘고물개’는 ‘밀개, 미래’로 나타나기도 한다. ‘밀개봉’ ‘미래산’이 그것이다.

3. 붓

문방구로는 붓(5)과 분필(1) 둘이 나타난다. 붓이 기반이 된 山名은 文筆峯(4), 筆峯山(1)이고 분필의 경우는 ‘분필봉’(1)인데 이것은 명명된지 얼마 되지 않는 이름이겠다.

4. 칼

‘칼봉’, ‘칼거리’, ‘칼갱이’의 세 가지가 있다. ‘칼봉’이 일반적인 형식이다. ‘칼거리’ ‘칼갱이’는 각각 ‘將軍大坐穴의 장군의 칼’, 그리고 ‘칼날형’이 山名의 기반이 된 것이다.

5. 기타

길마 : 길마재(2), 안장봉 / 遮日 : 遮日峯, 치알봉(2) / 방아 : 방아재, 방아산 / 屏風 : 九屏山, 屏風山 / 소반 : 소반봉(2) / 송곳 : 송곳봉(2) / 장구 : 장구봉(3) / 족대 : 족대봉(2) / 棺 : 송장산 / 광주리 : 광주리산 [篋珠山] / 도투마리 : 도투마리봉 / 돛대 : 돛대산 / 바디 : 바디산 / 바리 : 바리산 / 바랑 : 바랑산 / 보습 : 큰보습산 / 복지 : 복지봉 / 북 : 북산 / 상여 : 상여봉 / 소시랑 : 소시랑산 / 屍身 : 송장산 / 자물통 : 통미 / 장대 : 장대섬 / 鍾 : 종산 / 초롱 : 초롱봉 / 키 : 키미 / 桶 : 桶峯 / 香爐 : 香爐峯

3.3. 服飾・裝身具

服飾・裝身具 13種 빈도 44 중 사람의 頭部와 관련된 것이 (11種 빈도 42)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어레빗(1)을 제외하면 모두가 머리에 쓰는 冠이나 帽의 종류(10種 빈도 41)다. 산 봉우리와 사람의 머리, 모두 최상 부위에 속하는 것이다.

1. 갈모

가장 빈도가 잦은 것이 ‘갈모’(19)다. ‘갓모’ ‘갈미’ 등도 음운 상의 변화가 있을 뿐 모두 ‘갈모’이다. 갈모봉(3)보다 갓모봉(4)이 많고 갈미봉(10)이 더욱 많다. 기타 갓모산, 갈미 [葛山]⁽⁸⁾ 등이 있다.

2. 삿갓

갈모(19)보다 훨씬 떨어져서 여섯 개 밖에 없다. 삿갓재 (1)보다 삿갓봉(5)이 많다.

3. 감투

감투는 삿갓과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감투봉(5)이라는 이름뿐이다.

4. 기타

투구 : 도술봉 [斗술봉], 투구봉(2) / 쪽두리 : 쪽두리봉(2) / 갓 : 天冠山 / 冠 : 冠峯 / 冠帽 : 冠帽峯 / 구슬 : 珠峯山 / 紗帽 : 紗帽峯 / 어레빗 : 어레빗산 / 치마 : 초마빙장 / 탕건 : 탕근봉

3.4. 사람

사람 또는 사람과 관계된 것으로 玉女, 將軍, 老姑가 눈에 띈다. 모두 11種 빈도 37이다.

1. 玉女

사람과 관련된 것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玉女인데 山名은 玉女峯이다. A군에 속하는 玉女峯은 모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山形이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 玉女散髮形(9), 玉女彈琴形(3), 玉女端坐形(3), 玉女織錦形(2), 매우 수려하여 玉女처럼 생겼음(1)⁽⁹⁾

(8) 갈모와 유사해서 ‘갈미’ 라면 「葛」은 음의 일치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翫」이 많다면가 해서 葛山이라면 命名의 기반은 「翫」이니 두 이름이 각각 그 기반을 달리하는 셈이다.

(9) 玉女는 사전에 보면, 「마음과 몸이 옥같이 깨끗한 여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면 玉女라는 말이 이름으로 쓰인 山은 어떤 까닭에서인가 부드럽고 고운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는 山이라고 보아 무방할 것 같다.

2. 將軍

將軍峯(4)과 軍士峯(1)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는, 장군의 형국(1), 將軍大坐形(3)이며 後者는 將軍大坐形이다.

3. 老姑

할미[老姑] 처럼 꼬부라진 山形이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게 한 것이다. 할미봉[老姑峯], 할미성[老姑城]등으로 나타난다.

4. 기타

王者: 왕재봉(2)(端正 수려하여 君子와 같음)/君子: 君子山/舞童: 舞童山/武士: 武陵峯/手掌: 手掌山/차지: 차지봉(오뚝함)/팔머린 모양: 팔매숲[八眉峯]/송장: 송장산

3.5. 堆積物

노적가리(14)와 풀더미(1)의 둘이다.

1. 노적가리

농촌 사람들에게 山形과 노적가리가 비슷하게 느껴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山을 보면 노적가리를 연상하므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노적봉(11), 노적산(2), 벼까리봉(1)의 세 종류다.

2. 풀더미

한 예밖에 없다. ‘풀더미산’으로 나타난다. 풀더미가 노적가리만큼 사람과 가깝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고 인상적이지도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3.6. 民俗・信仰

1. 龍

龍은 상상의 동물이다. 그리고 적어도 한국에서는 상서롭고 영험한 동물이다.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미 말했듯이 상상의 동물이기는 하지만 일찍부터 그림을 통해서 특정한 형태의 龍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박혀 있다.

‘龍山’은 龍 그 자체의 형상과 山形과의 유사가 기반이 된 것인데 이것보다는 龍의 부분과의 유사가 명명의 기반으로 쓰이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龍아가리’는 ‘山’도 없이 그대로 나타난다. ‘龍頭山’은 龍의 머리가 기반이다.

용의 특정한 종류나 움직임이 山名의 기반이 된 예로는 ‘靑龍뿌리’ ‘飛龍’ ‘飛龍山’ 등이 있다. 九龍山의 경우는 아홉 용이 구슬을 닦는 형국이다.

그런데, 山名 중에 龍字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龍을 지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九龍山, 九龍峯의 九龍이 구덩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다.

2. 神仙

神仙 춤추는 형국이라는 ‘舞仙峯’과 仙人舞袖形의 ‘仙遊峯’ 둘이 있다. 모두가 춤추는 神仙이다.

3.7. 建造物

建造物과 山形이 형태 상의 유사성을 가진 것이 많지 않은 것 같다. 城廓으로는 可城山(天然的으로 산처럼 생겼음)과 金城[쇠재](철옹성처럼 되었음)이 있고, 닭의혹로 ‘서다지’, ‘동긋재’(닭동우리 형국)가 있다. 그 밖에 기둥봉 벌통날이 있다.

3.8. 文字

文字로는 一, 丁, 品의 三字 뿐이다. 一字峰, 一字山(3); 丁字峰, 곰배산; 品字山이다.

3.9. 植物

植物로는 마늘, 芙蓉, 竹筍, 梅花가 있다. 마늘봉[大蒜峰](2), 芙蓉山(2), 玉荀峰(2), 梅花峰.

3.10. 기타

달 : 월이산[다리산, 달리산], 半月山, 새달봉, 月明山/섬(島) : 섬피, 섬메, 島山/鷄籠山 : 鷄籠山⁽¹⁰⁾ / 마당 : 마당재, 마당재산

4. 命名的 基盤과 山名(2) : B群

4.1. 岩石

B군에서 가장 흔한 것은 岩石(67)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山名은 ‘X+바위’형이다.

1. X+바위+山⁽¹¹⁾型 : 말바위산, [馬岩山], 마당바위산, 매바우산, 龜岩山, 龜石山, 귀바우산[耳岩山]
2. 바위+山型 : 岩山, 바위배기, 돌산, 돌머기, 돌곽재, 돌풍봉, 돌뿔산, 바우배기산
3. X+山型 : 觀音峯(관음보살과 같이 생긴 바위가 기반), 錦繡山(錦繡岩 있음) 장뚝산(장뚝바위 있음), 맷돌봉 (맷돌바위 있음)
4. X+바위 型 : 登仙岩, 등산바우, 가마바우, 절바우

4.2. 建造物

A群에서와는 달리 B군에서는 建造物이 기반으로 등장하는 예가 많다.

1. 寺刹

建造物 중 가장 많은 것이 寺刹이다.

- a. 山名만으로도 절(寺)이 명명의 기반이 된 것이 분명한 것 : 철골, 절재, 높은 절,

(10) 金剛山처럼 아름다운 山이면 小金剛이라고 한다던가 俗離山의 餘勢가 이룬 山인 경우 역시 小俗離山이라고 하는 것이 一般的인 경향인데 鷄籠山이 기반이 되어서 그대로 다른 山의 이름으로 쓰인 것은 특이한 例다.

(11) 以下山은 山, 峯, 되, 재, 배기, 머기, 등등 일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동절.

- b. 山名만으로는 山名이 먼저인지 寺名이 먼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 : 成佛山 : (成佛寺), 藥師山 : (藥師寺)
- c. 佛堂·佛像이 기반인 것 : 佛堂山, 佛堂터, 대라불, 寶蓋山

2. 城趾

城趾가 명명의 기반인 山名은 ‘성터’와 같이 山名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城山, 성재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

城山[성재, 성터]과 같이 ‘城+산·재·터’ 형과 성티산, 성재산 등에서 보듯이 ‘城+재·터+산’ 형이 있다.

그 밖에 ‘土城’, ‘馬騰城’, ‘百濟城’, ‘할미성’ 등과 같이 城名 그대로가 山名인 것도 있다.

3. 祭堂

山祭堂, 城隍堂이 기반이 된 것이다. ‘山祭堂’이라는 山名은 그 山에 산제당이 있기 때문이고 ‘社稷山’은 사직단 터가 있기 때문이다.

城隍堂의 경우는 ‘城隍堂山’, ‘저낭재’ 등의 山名으로 나타난다. ‘대저낭 : 소저낭’의 대비 관계가 나타난 山名도 있다.

4. 기타

講堂 : 강당말림 / 國師堂 : 國師郎山 / 방아 : 방아다리 / 兵幕 : 병막산 / 碑石 : 비석산 / 書堂 : 서당봉 / 旌門 : 정문거리 / 將臺 : 장대 / 亭子 : 정자터 / 紙所 : 지소양달.

4.3. 植物

山에 있는 植物이 그 山名의 기반이 된 것으로 소나무가 우세하고 다음이 진달래다. 그러나 절대 우세한 만큼 많이 나타난 것이 없고 산만하다.

1. 소나무

소나무가 우세하다 해도 그렇게 많은 수가 되지 못한다. ‘솔봉’, ‘솔밭’, ‘솔봉돌’, ‘암솔’, ‘獨松亭’ 등이 있다.

2. 진달래

진달래 꽃이 기반이 되고 있으나 그것이 山名에 나타난 것은 없다. 진달래는 어느 山에나 흔히 있는 꽃으로 山과 꽃 하면 진달래를 연상할 정도다. ‘華山’, ‘꽃밭등이’, ‘花山’, [꽃산] 등이 있다.

3. 기타

柿 : 감산 / 花 : 花開山, 華峯 / 닳나무 : 鴨박재 / 丹楓 : 단풍산 / 竹 : 대나무밭 / 더덕 : 더덕산 [加德山] / 떡갈나무 : 頭竭峯, 떡갈봉 / 매나지나물 : 매나지골 / 栗 : 밤재 / 싸리 : 싸리봉, 싸리밭재 / 梧桐 : 오동산 / 栢 : 잣밭등 [栢山] / 芝草 : 紫芝峯, 探芝峯 / 철쭉 : 花軒獄 / 香나무 : 상남구매기

4.4. 墳墓

1. 墓

무덤의 주인공과 관련하여 姓名, 號 身分 등이 山名에 나타나 있다. 謙庵山(謙庵 柳雲龍의 묘가 있음), 알림산(按廉使 金士廉의 묘 있음), 梁兵山 (梁兵使의 묘 있음), 延山 (谷山 延氏 묘 있음), 玉女峯 (玉女 묘 있음), 왕자[재] 봉(府使의 묘 있음), 애기장봉(애기 묘 있음). 예외가 하나 있다. 林慶業 장군 묘가 있는 경우 큰 인물이 묻힌 산이라 하여 ‘큰 말림’(忠州市)으로 나타난다.

陵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능보산’ ‘능골산’ 등이다.

말무덤山[말피山]의 경우, [] 안의 별명은 결국은 말무덤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말산[馬山]이라고 한 것이다. 피와 山이 중복된 것 뿐이다.

2. 胎墓

胎가 묻혀 있어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 山의 이름이 붙은 것이 있다. 胎峯(8) 胎峯山, 安胎峯 외에 특이한 것으로 吉祥山 하나가 보인다.

4.5. 動物

A군에서 처럼 動物이 우세하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우세한 편이다. 황새(5)가 좀 눈에 띌 뿐 그 이외에는 아주 산만하다.

황새 : 황새봉(4), 황새재 / 매 : 매주봉[鷹住峯], 매봉, 매봉산 / 여우 : 여수탈짜기, 여우봉 / 곰 : 곰산[熊耳山] / 까치 : 까치섬 / 노루 : 사십비알 / 미래 : 미래산 / 범 : 角虎山 / 鳳 : 鳳巢臺 / 지네 : 지네산 / 소 : 소공동묘지.

4.6. 產物

‘쇠’가 네개 있을뿐 그 외에는 몇 가지 산물이 하나 둘의 山名에 쓰였을 뿐이다.

쇠 : 쇠봉산[鐵峯山], 쇠곳날, 무쇠봉(2). / 金 : 金積山 / 水晶 : 수정봉 / 솥돌 : 솥돌고개 / 七寶 : 칠보산(2).

4.7. 民俗·信仰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이론바 명당이 山名의 기반이 되었다. 명당이 있다면 그 山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형편이니 山名의 기반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渴馬飲水山(渴馬飲水의 명당) / 나비명당(나비형국의 명당) / 大德山(충북 제일의 명당으로 五賢이 날 터 있음) / 普賢山 (山下에 萬人可活之地 있음) / 柳木山 (鶯巢柳枝形의 명당) / 六判山(判書六인이 날 명당) / 將軍峯 (將軍大坐穴)

4.8. 烽燧

봉수가 있다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봉수의 고유 명사가 아니다. ‘봉화봉’, ‘봉화산’, ‘봉화대’, ‘봉화뜰’, ‘봉화골’, ‘봉우재’ [봉우산] 등이다.

吾現燐燐의 경우는 다르나, 이것도 단순히 ‘봉우재’, ‘봉터’로도 불려지고 있다.

4.9. 물

山과 水는 흔히 相對的인 개념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山에 물이 있으면 그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지도 모르겠다.

샘 : 淸涼泉山 / 藥水 : 약수봉 / 池 : 못재 / 물 : 물봉 / 沼 : 용추거리 (용초[沼]있음) / 水道 : 수도산.

4.10. 기타

꽃대 : 꽃대봉(4), / 古趾 : 진터, 구터산 / 窟穴 : 굴봉, 굴동이 / 峙嶺 : 무네미山, 싸리고개산 / 盜賊 : 도둑얼갱이 [道德山] / 村落 : 옷말산 / 쇠곳 : 쇠곳등 / 쇠대 : 쇠대배기 / 안개 : 雲霧峯 / 첩-서낭 : 칩덕-서낭

마지막으로 든 ‘칩덕-서낭’은 아주 특이한 山名이다. 기반으로서는 칩(葛)과 城隍堂의 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칩이 무성하고 성황당이 있어서 그것이 명명의 기반이 된 것이다.

5. 命名의 基盤과 山名(3) : C群

5.1. 山의 形勢

圓形(34)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타 山勢의 美麗, 傾斜의 緩急, 높낮이, 등등이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

1. 圓形

‘동그랑말립’, ‘동그랑남산’, ‘동굴미’, ‘두래봉’, ‘똥그락산’, ‘동굴봉’, ‘동그레봉’ 등 등 圓形을 가리키는 語詞들이 사용되어 山名이 圓形을 기반으로 한 것임이 명시된 예가 많다.

얼른 보아 圓形임을 알아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도래미 [東山底] (峯이 圓形), 두루봉(10), 두리봉(5) 두류봉(頭流峯), 주류봉 등이 있다.

圓形이 기반으로 된 山名 중 ‘두루봉’이 가장 두드러지는 점 흥미 있다.

특이한 山名으로 槐山의 德加山을 들수가 있다. 봉우리가 둥글어서 덕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2. 美麗

美麗함이 山名에 들어나 보이는 것으로 錦繡山, 文繡山, 仙女峯, 水晶峯, 華山 등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밖의 다른 기반으로 해서도 지어질 수 있는 이름이다.

顏子山은 山勢가 약하고 고와 顏子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風流山은 경치가 아름답워 놀기 좋아서 얻어진 이름이다.

3. 傾斜

경사의 緩과 急이 대립적으로 나타난다. 된벚영[변양]은 ‘된’에 의해서 急傾斜가 표현되어 있고 ‘느적미기’는 경사의 緩漫함이 엿보이는 이름이다.

‘깎은덩이’, ‘빙애산’ 등은 칼로 깎은 듯이 절벽이 진 山이다. 層壁이 그대로 山名이 된 ‘層壁’(報恩：山外)이 있다.

4. 高尖

山勢의 높고 뾰족함이 명명의 기반이다. 高秀峯, 天摩嶺 등은 문자 그대로의 특징을 가진 山이다.

白雲山, 雪雲山, 夏雲山, 夏雪山, 白霞山, 氷鏡山, 瑞雲山 등은 특수한 氣象 상태에 있는 山들인데, 이러한 氣象은 山이 높아야 되는 것이므로 ‘高’라는 意味의 素性は 필연적인 것이다.

기타 ‘뾰로지봉’, ‘뾰죽재’ 등은 尖形이 明示된 山名이다.

5. 기타

長：長山, 큰줄기/납작함：납작날, 납작말림/山勢의 巧妙：교공산(淸原：北一)

5.2. 所在

山이 존재해 있는 마을, 골, 터 등의 지명에 ‘山’이나 ‘峯’이 연결되어 山名이 되고 있는 것이다.

1. 所在地名+山：三道峯(忠北, 江原, 慶北 三道에 걸침), 上黨山(淸州), 수실말잔등(陰城：金旺)

2. 所在地+方位+山：山이 있는 마을, 골, 기타 어떤 목표물에다 그 앞·뒤·동·서·남·북 등 方位의 표지가 연결되고 거기 山 또는 山을 의미하는 형식이 연결된 경우다. 성너머산, 성밑말양, 米東山(米院東쪽山), 사기점뒷산, 향교뒷산, 학교뒤

3. 方位+地名：웃뱀골, 아래뱀골

所在地가 명명의 기반이 된 것 중 官廳山 같은 것은 특이하다. 鎭川邑 主山인데 진천읍 산이라고 하지 않았다. 진천에 官衙가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5.3. 方位

(5.2)의 b와 같은 예를 여기서는 제외했다. 지명이 명시되지 않고 다만 方位名만으로 된 山名을 소개한다. 東西南北 四方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南(13)이다. 南山(12), 南漢山(1) 등이다. 그 밖에 西는 ‘西山’, ‘西山바래기’의 둘이고 北은 北山 하나다. 웃말 東쪽에 있는 山이 ‘웃동산’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뒤’가 명명의 기반이 된 것으로는 ‘뒷주봉’, ‘뒷매’, ‘뒷산’ 등이 있다. 앞의 경우는 ‘앞산’, ‘앞동산’ 등이 있다. ‘속날’에서는 ‘속’(丙)이 기반이다.

方位에서 특이한 것은 ‘靑龍’이다. 風水地理說과 관계 있는 것으로 靑龍 白虎의 靑龍은 左側이다. 靑龍山, 靑龍뿌리, 靑龍 등이 나타나는데 ‘靑龍山’이 많다.

5.4. 對比

山이나 峯이 복수로 있을 때 그들을 대비시켜 명명하는 예가 있다.

1. 大小

대비 관계 중 가장 우체한 것이 大小의 대비다. 작은 두루봉 : 큰두루봉, 작은삼봉 : 큰삼봉, 작은꽃네미 : 큰꽃네미, 작은말림 : 큰말림, 小香山 : 大香山, 작은 봉우뚝 : 큰봉우뚝, 작은 말무덤 : 큰말무덤 등이다.

두 개가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大小의 대비는 아니지만 근처에서 제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山名들이 있다. 大山, 큰산, 大峰山, 큰三峯, 큰봉두리, 큰봉 등이다.

大小의 대비에서 특이한 것은 小俗離山이다. 음성에 있는 산인데 보은 속리산의 줄기가 북방으로 향하여 형성된 산이므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俗離山의 餘勢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2. 高低

大小의 경우와 좀 달리 나타난다. ‘높은봉 : 낮은봉’식의 대립이 없다. 大小의 대비에서 두번째로 논의한 ‘大山’ ‘큰봉’과 비슷한 유형이다. 高主峰(근처에서 제일 높다), 高峯, 높은봉, 上峯, 王子峯 등이 이런 의미의 대비에 의하여 명명된 山名들이다.

3. 母子

‘母 : 子’의 대비에 의해서 명명된 山名이다. ‘애기봉 : 어머니산’이 그 예다. 많지 않다. 전자는 ‘峯’ 후자는 ‘山’인데 주목된다.

4. 天地人 三才

三者의 대비다. ‘天登山 : 人登山 : 地登山’의 대비다. 天地人 三才인데 人이 天과 地의 중간에 있으므로 山도 가운데 있는 것이 人登山이란 것이다.

5. 王者 : 中軍 : 투구

같은 三者 대비이면서 天地人 三才의 경우와 다른 것이 있다. ‘왕계봉 : 中軍峯 : 투구봉’이다

5.5. 數

1. 三

數로서 山名の 기반이 된 것 중 三이 가장 많다. 三峯, 三台山, 三洞山, 큰三峯, 三神山, 삼태봉, 島潭三峯, 三頭峯, 三兄弟峯, 三峯山 등이다. 그 중 三峯山이란 이름이 가장 많다.

2. 二

偶數로서는 二와 十二가 나타난다. 兄弟峯(4)이 가장 많이 보이고 兄弟, 雙峯山 등이 있다.

3. 七

삼과 함께 七은 한국인이 대단히 좋아하는 수다. 七峯山(3), 七峯 두 가지 이름이 있다.

4. 기타

五: 五峯山, 五老峯 五峯 / 八: 八峯山 / 九: 九峯山, 九峯, 구명산 / 十二: 十二峯 [열두봉]

5.6. 土色·土質

이 범주에 드는 山名의 기반은 거의 色彩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한 바 있다.

1. 土色

네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데 어느 쪽도 많은 예는 없다.

白: 白頭山 [백죽산], 백토재, 흰봉재 [白峯]

赤: 붉은대지, 꽃말양 (흙이 붉고 꽃과 같음)

黑: 거명산 [검운산]

2. 土質

黃土가 명명의 기반이 된 것으로 ‘黃土,’ ‘黃土山’이 있다. 그리고 모래가 많다는 것이 기반이 된 山名으로는 ‘사장재, 옥새봉, 沙多山, 沙峯, 모래봉(5)’이 있는데 ‘모래봉’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5.7. 氣象·氣候

氣象이 기반이 된 것은 구름, 눈, 얼음, 벼락, 안개 등등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공통되는 특징은 이들이 山이 높다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山이 높아서, 늘 구름이 끼어 있다던가 또는 초여름까지도 눈이나 여름이 녹지 않는다던가 하는 특이한 氣象 조건에 의거하여 명명된 것들이다.

구름: 夏雲山, 瑞雲山, 白雲山, 雪雲山 / 안개: 白霞山, 霧起峯 / 눈(雪): 夏雪山, 雪雨山
얼음: 氷鏡山 / 벼락: 벼락산, 벼락재

5.8. 기타

人工山: 조산담, 造山 / 山頂에서 김이남: 김나는 꼭대기 / 月出: 月出峯 / 저녁해 많이 받음: 西山 / 四方이 다보임: 四方山 / 樂天知命: 智命山

6. 命名의 基盤과 山名(4): D群

6.1. 民俗·信仰

1. 달맞이

望月山(6) 望月峯(4)이 대표적인 이름이다. 望月모이(1)는 ‘되’가 ‘모이’로 된 方言에 의한 山名이고, 望月산(1)은 ‘망월’이 ‘맹월’로 된 것이다. 그 밖에 망재산(1)은 ‘달’이 빠져

있기는 하나 동일한 기반에 의해서 명명된 것이다. 달봉(1)은 月峯이니 ‘望’이 빠졌으나 또한 달맞이가 기반이다.

2. 神仙

神仙의 특징의 하나는 閑遊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특징이 그대로 山名에 나타나서 神仙峯(4)이니 降仙峯, 仙到山, 四休峯이 모두 神仙이 놀았다는 얘기와 관련되어 있다. 神仙이 놀았다는 것이 실지로 있었던 일일 까닭은 없겠으나 사람이 행적에 따라 신선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면 容或無怪하다. 아뭏든 놀기 좋다면, 山이 대단히 아름답다면 한 것에서 연유한 것만은 틀림이 없겠다.

黃庭山(1)은 특이한 이름이다. 黃庭經은 道敎의 經典이다. 黃庭經을 講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것이 이 山名의 기반이 된 것이니 한 층 승화된 山名이다.

3. 巫俗·祭天

鳥堂굿을 하였다고 해서 鳥堂山이라 하였다.

武帝峯은 가뭄이 들 때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좀 특이한 이름이다. 이 밖에 다음과 같은 山名이 있다. 恩積山(每年 3日 15에 祭天), 望德峯(자식을 원하는 사람이 산소에 별초하면 소원을 성취했다 함), 聖主峯(치성드렸다 함)

4. 風水地理說

處州 邑內 부자들이 어떤 山으로 인해서 자주 죽어간다고 하여 그것을 막기 위해서 客望山이라 하였다. 山과 관련된 이런 얘기는 흔히 있다. 發李峯은 李氏가 잘된다는 곳이다. 다음의 山名들이 모두 風水地理說과 관련해서 명명된 것이다.

소금무지산 (소금을 뿌려 火災를 예방하다), 鹽山(소금), 文翰山[문안산] (山形이 사모와 같아서 이 산이 비치는 곳마다 文章 才士가 많이 난다 함).

5. 龍의 昇天

龍은 물과 인연이 깊다. 물 속에서 때를 기다리다가 昇天한다는 것이 龍과 관련된 얘기의 定石인 것처럼 되어 있다.

龍潭山, 龍沼峯은 ‘물’이 明示된 山名이다. 물[潭·沼]에서 龍이 昇天한 것이다.

龍山峯은 一名 龍上峯이다. 후자는 용이 올랐다는 것이 명시적이다. ‘용두뿌리’는 ‘용의 머리 산’이란 山名이다.

6.2. 動物

D군에서도 動物은 山名의 기반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매(17)이며, 다음이 말[馬:3]이다. 학, 닭도 명명의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예가 하나씩 밖에 보이지 않는다.

1. 매

매는 매사냥과 관련된 것으로 매사냥 때 매를 날린 곳과 받던 곳이어서 그런 내력이 명

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매봉재’가 절대 다수다. 기타는 매봉산, 鷹峯山 등이 있으나 하나씩 밖에 보이지 않는다.

2. 기타

말: 馬城山(2) (城쌓고 말 먹임, 말의 조상을 제사지냄), 말바탕이[踏馬嶺] / 닭: 鷄足山 / 학: 九鶴山.

6.3. 戰爭・避亂

전쟁 때 布陣했던 것이 기반이 된 山名으로 이진봉(3), 屯陣山이 있다. ‘陣’이 明示되지 않은 것으로 兵馬山, 弓裔城등이 있는데. 싸움이 있었으면 陣을 쳤을 것이나 그것이 山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다.

戰亂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避亂을 잇을 수가 없다. 特定人 또는 一般의 避亂處가 되었던 일이 명명의 기반이 된 山名이 여럿 있다.

加隱山(麗未에 倭亂을 피한 곳), 千德山(王亂時 千名이 피한 곳), 御來山(王이 피란), 御留山(공민왕이 흥건적의 난을 피함), 國師峯(소상), 避難峯(조종복 선생 피난). 피란이 기반이 된 경우 王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걸 흥미 있다.

6.4. 氣象・氣候

천지개벽과 홍수 때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겨우 얼마가 남았다는 식의 얘기가 있다. 그때 그 무엇만큼 남았다는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山 또는 峯등에 先行하여 山名이 되고 있다.

소당재 (소당), 새봉[조봉산, 조봉] (새머리), 샷갓재, 烏頭[五垆山](까마귀머리), 갈미봉(갈모), 명석 마루(명석) 퇴박등(퇴박), 大野山(대야)

여기서 명명의 기반이 되어 있는 물건들은 모두 일상 사용하는 用具와 鳥類다. 하나 특이한 것은 燕飛山(丹陽: 丹陽)이다. 이것은 제비만큼 남은 것이 아니라 제비가 앓을 만큼 남았다는 것이다. 무네미[미네미]는 물이 넘었다는 것이 기반이 된 山名이다.

6.5. 望京・慕君

忠臣이나 隱士의 望京・慕君이 명명의 기반이 된 山名에 國師峯(3), 國望峯(2) 등이 있다. 하나 특이한 것은 君子山 (고려 유신이 산에 올라 松都를 바라보며 탄식하다)이다.

6.6. 기타

風流: 品官山(品官이 많이 놀다), 瑟琴山(경치가 아름다워서 글 짓고 노래하고 놀던 곳), 歌唱[駕唱山] (중이 산에 오는 施主女子와 노래하다) / 修學・修藝: 國士峯(蘭溪 朴堧이 공부하여 樂聖이 됨), 笙洞山 (어떤이가 笙을 배움) / 修道: 道明山(道師가 道를 깨침) / 住居人物: 長者峯(長者가 살다), 徐林山(徐林장군 응거) / 築城: 九女城(一男九女の 城쌓기 전설).

7. 命名的 基盤과 山名(5) : E群

A~D群의 어디에도 넣기가 적합하지 않은 기반을 묶었다.

7.1. 所有

山の 所有 關係가 命名의 基반이 된 山名들이 상당히 있다.

姓+山: 강승산 (강씨 소유의 산), 洪山(洪氏 宗中山), 韓山(韓氏 宗中山), 趙山(趙氏山 張山(張氏山)/官職+山: 侍良山 (侍良 벼슬한 사람의 소유/墓 主人의 姓+山: 洪氏山(洪氏墓있는山)/기타: 洞山(洞有林), 院山(書院 所有), 國有地(國家所有山).

7.2. 기타

佳洲空山(나무해도 말리는 사람 없음)/模範山(山林綠化의 模範林)/禁山(나무 금하는 山) /물구경재 (강마 때 물구경하는 산)/양살미(陽山里에서 떠내려 음)/통살목(전에 배가 다녔음).

8. 結

이상에서 조사 분석한 忠淸北道 內의 山名의 主要 基盤은 다음과 같다.

群	基 盤 範 疇	具 體 的 基 盤
A	1. 動物	1) 매 2) 말 3) 독수리 4) 소 5) 누에 6) 벌 7) 학 8) 봉황 9) 개 10) 구렁 이·뱀 11) 황새 12) 기타
	2. 用具一般	1) 시루 2) 고무래 3) 붓 4) 칼 5) 기타
	3. 服飾·裝身具	1) 갈모 2) 샷갓 3) 감투 4) 기타
	4. 사람	1) 玉女 2) 將軍 3) 老姑 4) 기타
	5. 推積物	1) 노적거리 2) 풀더미
	6. 民俗·信仰	1) 龍
	7. 建造物	
	8. 文字	
	9. 植物	
	10. 기타	
B	1. 岩石	1) 寺刹 2) 城趾 3) 祭堂 4) 기타
	2. 建造物	1) 소나무 2) 진달래 3) 기타
	3. 植物	1) 墓 2) 胎墓
	4. 墳墓	
	5. 動物	

	6. 産物 7. 民俗・信仰 8. 燧燧 9. 물 10. 기타	
C	1. 山の形勢 2. 所在 3. 方位 4. 對比 5. 數 6. 土色・土質 7. 氣象・氣候 8. 기타	1) 圓形 2) 美麗 3) 傾斜 4) 高尖 5) 기타 1) 大小 2) 高低 3) 母子 4) 三才 5) 기타 1) 三 2) 二 3) 七 4) 기타 1) 土色 2) 土質
D	1. 民俗・信仰 2. 動物 3. 戰爭・避亂 4. 氣象・氣候 5. 望京・慕君 6. 기타	1) 달맞이 2) 神仙 3) 巫俗・祭天 4) 風水地理 5) 龍의 昇天 1) 매 2) 기타
E	1. 所有 2. 기타	

(師範大學 國語科)

參 考 文 獻

1. 한글학회 편저, 한국지명 총람 3, 충북편, 1970.